

주장사파라...

⑩ 효봉 스님의 '길'



조태호



효봉 스님(1888~1966): 평남 양덕군 출신. 평양 고보, 와세다대 졸업후 법관 생활하다가 신계사서 득도 후 교학·선수행에 매진. 1962년 통합 종단 초대종정.

석녀 구파의 권유에 따라 선재동자는 마야부인을 찾아간다. 마야부인은 석가 세존을 낳으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선재동자가 마야부인이 계신 곳에 나아가니, '보안이라고 하는 성을 맡은 신(神)이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마땅히 마음의 성(城)을 수호해서 모든 생사의 경계를 탐하지 않아 한다. 마음의 성을 장엄해서 일심으로 여래의 열 가지 힘(十力)을 구해야 한다. 마음의 성을 깨끗이 다스려서 탐욕을 부리거나 인색하고 질투하고 아첨하며 속이는 일을 끊어야 한다."

다음에 몸이 많은 신(身)이 묘한 음성으로 마야부인을 갖가지로 칭찬하는 것을 듣고, 또한 귀고리에서 나오게 하는 가지각색의 광명그물을 보고 선재동자는 깨끗하고 광명한 눈을 얻었다. 그리고 보살의 법당을 수호하는 선안(善眼)이라고 하는 나팔귀왕은 선재동자에게 선지식을 친근하는 열 가지 법과 선지식을 보게 되는 열 가지 삼매를 가르쳐 주면서 "용맹하고 자재하게 사방에 두루 노닐면서 선지식을 구하되, 몸과 마음이 썩고 그립자 같은 줄을 관찰하여 선지식을 구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선재동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혜의 눈을 열어 용맹스럽게 선지식을 구함으로써 비로소 마야부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모(佛母)인 마야부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래의 출생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여래를 출생시키는 것이 심성을 잘 수호하고, 해안을 열며, 선지식을 구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재동자가 마야부인을 보니 여러 중생의 앞에서 청정한 육신을 나타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몽 <60>

마야부인의 법문

선안, 선지식 구해야 佛母 볼 수 있어 보현의 행과 원은 부처 낳는 근본

내고 있었다. 모든 존재의 길에서 뛰어나 삼계를 초월한 육신, 모든 세간에 집착이 없이 중생들이 좋아하는 데로 따라주는 육신 등 한량없는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이익케 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고, 도 닦는 데에 도움이 되는 법(道法)을 갖추어 주었다. 또한 평등하게 보시바라달라를 행하여 대비심으로 모든 세간을 두루 덮어주며, 모든 보살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마야부인이 무량한 여러 가지 방편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보살의 행을 배워서 성취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마야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환술과 같은 해탈문(大願智解脱門)'을 성취하였으므로 항상 여러 보살의 어머니가 된다. 불자여, 내가 이 염부

오며, 보살도를 행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대중을 위해서 바른 법문을 굴리는 것을 보았다. ... 그때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 오려고 할 때에 열 세계 티끌 수 보살이 있었는데, 모두 이 보살과 더불어 원·행·선근·장엄·해탈·지혜가 같았다. 보살은 이들과 함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통변화를 부리면서 내 몸에 들어왔던 것이다. ... 나의 백초에 이렇게 많은 대중들을 용납하지는 못이 더 커지지도 않고 비좁지도 않았다.

선남자여, 이 사천하의 염부제에서 보살이 태어나실 적에 내가 어머니가 되듯이 삼천대천세계 백억 사천하의 염부제에서도 모두 그러하지는 나의 이 몸은 본래부터 틀어 아니며,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 왜냐하면 보살의 큰 원과 지혜가 환술같이 장엄한 해탈문을 닦은 때문이다. 사방의 한량없는 세계와 모든 겁에서 보현의 행과 원을 닦아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려는 이에게도 나의 몸이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내가 본다."

마야부인이 설하고 있는 '대원지해탈문'의 법문은 본원(本願)의 자비심에서 지혜를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의 몸을 허깨비(幻)와 같이 무수하게 나타내어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처가 출생하는 것이기에 마야부인이 이러한 법문을 하는 것이다. 특히 '보현의 행과 원을 수행해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자에게도 나의 몸이 그들의 어머니가 된다'고 설하고 있는 것에서, 보현의 행과 원이 부처를 낳는 근본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부처님 입적 해가 佛紀의 기준인 이유?

문 올해는 불기 2548년이다. 서기는 예수 출생년도부터인데, 왜 불기는 부처님 입멸로부터 연대를 계산했을까? (D '북북이')

답 '불기(佛紀)'란 석가모니불이 입멸(入滅)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표시다. 즉 '불기'란 '불멸기원(佛滅紀元)'을 줄인 말이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에서 연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 열반한 해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 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옛 인도인들은 역사 기록 자체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아 부처님 탄생 연도는 물론 열반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단지 부처님 사후 100년째 되는 해에 마우리아왕 조에서 아쇼카 왕이 즉위했다고 전해져 이를 토대로 역으로 셈하여 입멸 연도를 짐작도 한다. 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아쇼카 왕이 부처님 사후 218년째 즉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도를 침입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연대로 따진 것인데, 이 기록에 따라 1966년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입멸 2500년을 기념하며 제1차 세계불교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연대를 대부분의 불교 국가들이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D '북뉴스팬')

북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34 불립문자(不立文字)-7

그러니까 글쓰기, 문자문화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을 보면, 우선 글쓰기는 인간 정신 내면의 일을 외부에다가 사물화(事物化), 객체화(客體化)시킨다는 점을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말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유의 소통이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글은 그러한 대면의 현장을 떠나 저 홀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비현실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작적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즉, 문자는 인간 정신활동의 내면성과 현실성, 자연스러움을 파괴한다고 본 셈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중시한 인간 정신활동의 본령은 무엇일까?

플라톤이 소개하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보면, 글쓰기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글은 말의 복사물이다. 말은 사유 속 개념의 복사물이고, 개념은 사물의 복사물이다. 모든 사물은 각자의 본질(idea)이 지각 또는 감각되는 형태로 복사된 것이고, 그 각 사물의 본질은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원리(idea)가 복사된 것이다. 그러니 글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의 궁극적인 원리로부터 몇 단계나 멀리,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우주 전체의 궁극적인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인간 정신활동의 궁극적인 본령이라고 여겼다. 그 이데아란 평이한 말로 달리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을 일관되게 하며 모든 것을 수렴하는 원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리이다. 삼라만상의 개체가 다 그 하나로 수렴되므로, 오직 하나이면서도 보편적인 원리이다. 개체성 너머 그런 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하나의 원리를 찾는 것이

고전사상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인도 우파니샤드 사상의 일자(一者), 중국의 천(天)과 도(道), 유대·기독교 전통의 야훼, 그리고 불교의 정법(正法)이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의 개념이라고 일컫는다.

그런 포괄적이며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실재를 바라보는 사상에서 삼라만상의 개체성에 얽매인 사고방식이 큰 문제거리로 여겨진다. 서로 다르고 구별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에 다 들어가는 그 궁극적인 실재를 체득하려면,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류해지던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 서로 다르게 보이고 구별되지만, 그런 차별성, 개체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뒤의 일체성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편의상 불교의 용어를 빌어 불이(不二)의 입장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고전종교들을 보면, 하나 같이 불이의 원리를 실생활의 현장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윤리규범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관련하여 유명한 예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이다.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남과 자신의 구별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있다. 똑 같은 얘기로, 불교에서도 동체자비(同體慈悲)를 말한다. 그런 불이적 입장에 대해, 왜 문자나 글쓰기는 장애가 된다는 것일까? 이미 짐작은 되겠지만 다음 글에서 더 이야기를 끌어가기로 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상식퍼즐

가로

1	2	3	4	5	6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오레오에 삶 2.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임금 3. 절에서 산신을 모신 절 4. 육수 5. '자칫 잘못하였다'를 뜻하는 부사 6. 절, 사원의 동이 10. 수크로오(蔗糖)를 주성분으로 하는 감미료로 아주 달다 12. 문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 13.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지혜제일존자 17. 학처럼 뭍을 떼고 기다린다는 뜻 18. 직업으로서 말아서 하는 일 20. 남의 능력이나 힘에 따라 일을 맡아 보는 뜻의 부사 21. 학교의 각 교육 과정에 맞도록 편찬된 도서 22. 어떤 사무를 직접 맡아 하는 사람 23. 고등학교의 졸업말 25. 밤 열두 시로부터 날 열두 시까지의 사이